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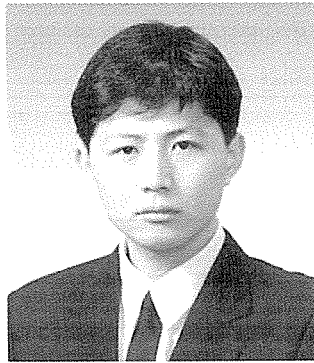
理工系 대학원생으로 肖像이 아쉽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것은 92년 여름의 일이다. 대학을 들어올 때, 그곳에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3학년초까지 확실한 꿈을 찾지 못했다. 90년초, 서서히 진로문제를 생각하던 나에게 한 선배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실험실에 연구생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행히 난 이 과정을 통해서 미리 대학원에서의 여러가지 일들을 알 수 있었다. 그후 내가 대학원으로 진로를 굳히게 된 것은 박사과정에 있던 한 선배의 실험하던 모습을 보고 나서였다. 뭔지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어려운 실험적 제약조건을 하나 하나 풀어가는 모습, 자기 자신이 남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게는 커다란 매력이었다.

대학원을 입학하고 나서 나의 첫번째 일은 졸업을 앞둔 선배의 실험내용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다. 실험을 직접 해보지 않아 조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런대로 일을 마쳤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직접 하지 않은 실험이었지만 이론식을 세우는 과정과 검증하는 작업이라던지 실험의 내용, 반응기구 등을 맞볼 수 있었다. 그뒤로도 선배들의 실험에 관계된 여러가지중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거의 도맡아서 하다가 피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되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는 청계천을 다니는 일이 있었다. 난 이것을 좀 고상하게 「쇼핑」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청계천에 황산을 사러 간다」고 하면 삭막하게 보이지 않는

캠 퍼 스 發 言 臺



潘 壯 鎬

(고려대대학원/금속공학파)

가. 청계천으로 「쇼핑」가는 일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다. 필요로 하는 재료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빠른 실험의 진척을 의미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실험재료, 기구들과 갖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이곳에 가면 널려있다.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갖게된 특혜중 하나는 학부때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KIST 도서관에는 여러가지 필요한 논문자료들이 많다. 물론 이곳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체로 적어간 목록의 반 정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날은 재수좋은 날이다. 가끔 찾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T)도 필요한 문헌자료를 찾는 데는 좋은 곳이다. 직접 실험을 해야하는 사람으로서 논

문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하여 실험전의 실험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실험중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가끔 시간이 남는 날이면 도서관의 정기간 행물실에서 전공에 관련된 저널들의 내용을 그냥 훑어보곤 한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쓸 만한 것을 건질 수 있다. 가끔에 콩 나듯...

매주 화요일에는 학부실험실습이 있다. 실습하기 하루전쯤 미리 예비실험을 해보는데 아마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중 이 시간이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다.

요즘은 내가 연구생으로 있었을 때 한 선배가 내게 해준 말이 가끔 생각난다. 「대학원이란 시간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곳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요즘은 그말이 무슨 뜻인지 피부로 느껴진다. 아마도 내가 입학당시 세웠던 계획을 모두 잘 수행해 낸다면 나의 대학원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 잡기를 익힐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대학원생으로서의 초상어일까 그런 것의 표준형은 없다. 다만 지금 위의 내 생활들을 종합하여 이상형이란 이런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주어진 환경안에서 무슨 일이건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를 붙들고 한탄하느니 맨땅이라도 파야하지 않겠는가. 맥가이버는 바로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이상형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대학원생의 모습 중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